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의 제작 배경과 특성

김봉좌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고문헌관리학 전공

likecho@naver.com

I. 머리말

II. 가상존호의례와 한글 문헌의 제작

III. 한글본 책문의 형태와 특성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왕실에서는 여성이 의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주요 문헌들을 한글본으로 별도 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비, 왕비, 왕세자빈 등 비빈들과 그들을 보좌하여 실제로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상궁 이하의 내인들이 해당 의례를 제대로 이해하여 차질 없이 거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한글 문헌의 유형과 제작 배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진작례(進爵禮)나 장례(葬禮) 때 제작된 개별 한글 문헌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으로¹⁾ 한글본 의례 문헌의 제작 과정과 용도가 점차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현전하는 한글본 책문(冊文)으로 관심이 기울어졌다.

책문은 왕실 구성원에게 지위나 이름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간책(簡冊)에 새겨서 내리는 글을 가리킨다. 그 내용에 따라 봉책(封冊), 존호책(尊號冊), 시책(諡冊), 휘호책(徽號冊), 애책(哀冊), 축책(祝冊)으로 나뉘며, 대나무나 옥에 새긴 의물(儀物)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사본(筆寫本)과 탁인본(拓印本)으로도 제작되었다.²⁾ 한글본 책문은 필사본으로서 여성 집사를 위한 습의건(習儀件)과 국왕 및 비빈에게 올리는 내입건(內入件)의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졌다.³⁾ 그러나 습의건의 경우 후속 연구를 통해 습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낭독을 맡은 상궁이 습의 이전까지 연습용 대본으로 사용하는 이습건(肄習件)으로 제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의례의 예행연습에 해당하는 습의에서는 나무로 만든 가책(假冊)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⁴⁾

현전하는 조선 왕실의 한글본 책문은 모두 7건이다.⁵⁾ 이 중 1823년(순

1)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1); 김봉좌, 「순조대 진작 의례와 한글 기록물의 제작: 1827년 慈慶殿進爵儀禮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140호(2015), 151-179쪽; 김봉좌, 「綏嬪朴氏 한글 冊文의 제작 배경과 특성」, 『진단학보』 제129호(2017), 153-179쪽.

2) 張乙演, 『조선시대 책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3) 위의 논문, 166-171쪽.

4) 김봉좌, 앞의 논문(2017).

5) 1823년 「綏嬪朴氏諡冊文」(장서각 K2-3068) · 「綏嬪朴氏哀冊文」(장서각 K2-3019), 1866년 「孝裕獻聖王大妃加上尊號冊文」(장서각 K2-4158) · 「明憲大妃加上尊號冊文」(장서각 K2-4057) · 「明純大妃加上尊號冊文」(장서각 K2-4056), 1890년 「明成皇后上

조 23) 유빈(綏嬪) 박씨의 장례를 치를 때 올린 시책문(諡冊文)과 애책문(哀冊文) 2건은 낭독을 맡은 상궁의 이습건으로서 그 제작 과정과 내용 및 형태적 특징이 규명된 바 있다.⁶⁾ 그리고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중궁전에 존호(尊號)를 올릴 때 제작된 책문 4건이 있는데, 이는 비빈에게 올리기 위한 용도의 내입건으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나머지 1건은 황태자비를 책봉할 때 제작된 책문으로서 혼례에 수반되는 문헌으로 그 성격과 용도가 다른 책문과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한글본 책문의 다양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내입건으로 알려진 가상존호 책문 4건을 구체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은, 1866년(고종 3) 2월 10일에 국왕 고종이 대왕대비 신정왕후 · 왕대비 효정왕후 · 대비 철인왕후에게 각각 올린 책문 3건, 1890년(고종 27) 2월 11일에 왕세자 척(훗날의 순종)이 왕비 민씨(명성황후)에게 올린 책문 1건을 가리킨다. 제작 시기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왕실의 비빈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은 각 책문의 제작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형태 및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각 책문의 제작 배경은 해당 의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1866년의 『존숭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와 1890년의 『가상존호도감의궤(加上尊號都監儀軌)』⁷⁾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책문의 형태 및 내용 또한 의궤의 기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가상존호의례와 한글 문헌의 제작

1. 1866년 2월 의례와 한글 문헌

1866년(고종 3) 2월 10일, 대왕대비 신정왕후 · 왕대비 효정왕후 · 대비 철인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는 철종의 국상이 끝나고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부묘(祔廟) 시기에 맞추어 왕실 어른들의

尊號冊文」(장서각 K2-3068), 1906년 「皇太子妃冊封文」(장서각 왕실고문서 788).

6) 김봉좌, 앞의 논문(2017).

7) 『尊崇都監儀軌』(규장각奎13448), 『加上尊號都監儀軌』(규장각奎13473).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존숭도감(尊崇都監)을 부묘도감(附廟都監)과 함께 설치하였으며, 당상관과 낭청 등 주요 관원들이 두 도감에 겸직하게 함으로써 각기 다른 의례를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였다.⁸⁾ 따라서 2월 1일 담제(禪祭), 2월 6일 부묘례(附廟禮)에 이어 2월 10일에 존숭례(尊崇禮)가 거행되었다.

존숭도감은 1865년(고종 2) 11월 1일에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낭청(郎廳)이 임명되고, 6일에 훈련도감에서 주요 관원들이 회동하면서 출범하였다.⁹⁾ 그 사이 예조의 주관으로 대왕대비전은 '순화(純化)', 왕대비전은 '홍성(弘聖)', 대비전은 '휘성(徽聖)'으로 존호를 정하였다.¹⁰⁾ 그리고 존호를 올리는 의의를 새긴 옥책(玉冊)과 존호를 새긴 옥보(玉寶)를 제작하기 위하여 글을 짓는 제술관(製述官)과 글자를 쓰는 서사관(書寫官)을 임명하였다. 대왕대비전을 위해서는 옥책문 제술관 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서사관 홍인군 이최응(李最應)·옥보전문(篆文) 서사관 봉조하 김흥근(金興根), 왕대비전을 위해서는 옥책문 제술관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서사관 동녕위 김현근(金賢根)·옥보전문 서사관 영돈녕부사 김좌근(金左根), 대비전을 위해서는 옥책문 제술관 좌의정 김병학(金炳學)·서사관 남녕위 윤의선(尹宜善)·옥보전문 서사관 행판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을 임명하였다.¹¹⁾

옥책의 제작은 제술관이 글을 지어 예문관(藝文館)에 제출하고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올리는 데서 시작되었다.¹²⁾ 그리고 책(冊)에 새길 서사식(書寫式)을 확정하여 초본인 초도서(草圖書)를 만들어 다시 왕의 검토를 거쳤다.¹³⁾ 세 책문의 초도서를 만드는 데에는 도련지(鑄鍊紙)와 저주지(楮注紙) 각 6장을 비롯하여 당주홍(唐朱紅), 편연지(片臙脂), 붓, 먹 등이 소용되었으며, 붉은 명주 3폭 보자기에 싸서 붉은 함에 넣어 왕에게 올렸다.¹⁴⁾ 초도서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에는 서사관이 정서하여 간책(簡

8)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0月 26日.

9)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舉行日記.

10) 『承政院日記』 고종 2년(1865) 11월 4일.

11)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1月 6日; 賞典, 丙寅 2月 11日.

12)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本房所掌. “玉冊文製述官製出, 自藝文館直呈于政院, 啓下後, 本房郎廳, 具彩興細儀仗奉來. 書寫官書出草圖書, 入啓時, 玉冊刊本進上時, 郎廳陪進, 如前儀.”

13) 책문은 製述-出草本-草圖書-正本의 과정으로 제작되며, 최종적으로는 대나무나 옥 등에 정본을 붙여 글자를 새김으로써 儀物인 ‘冊’으로 만들어진다.(張乙演, 앞의 논문(2016), 113-127쪽.)

冊)에 새겼다.¹⁵⁾ 그리고 한자 및 한글로 정서한 필사본도 제작하였는데, 초도서와 달리 상품도련지(上品搨鍊紙)와 백면지(白綿紙)를 사용하고 비단으로 표지를 장황한 내입건만 만들었다.¹⁶⁾ 이는 당시 의례가 간소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 본래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에서 왕이 책·보(冊寶)를 상전(尙傳)을 통해 전하는 의례를 행한 뒤에는 내전(內殿)인 창경궁 통명전(通明殿)에서 옥책과 옥보를 대왕대비전 등에 올리는 의례가 뒤따랐다.¹⁷⁾ 그러나 당시 의례에서는 대왕대비전의 명으로 통명전에서 직접 받는 친수의(親受儀)가 생략되었다.¹⁸⁾ 즉, 여관 등이 비빈에게 책문을 올리는 의식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이습건이나 소지건 등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옥책과 함께 올리는 옥보 역시 책문과 마찬가지로 전문(篆文)을 쓴 초도서를 먼저 만들고 왕의 검토를 거친 뒤에 내입건을 만들었다. 이 또한 한자 및 한글로 정서한 필사본으로 제작하였는데, 상품도련지와 저주지를 사용하고 비단으로 표지를 장황하였다.¹⁹⁾ 그리고 한자 및 한글본으로 제작한 내입 옥책문과 옥보문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미리 대왕대비전 등에 올렸다.²⁰⁾

의물로 제작된 옥책과 옥보는 탁인본(拓印本)으로 인출하여 왕을 위한 어람용 6건과 도제조 등을 위한 분송건(分送件) 48건을 만들었다.²¹⁾ 현재 의물은 국립고궁박물관, 탁인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전한다.

14)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1月 20日. “內入草圖書三件所入, 搨鍊紙六張・楮注紙六張・唐朱紅二錢・片臘脂一片・黃筆三柄・首陽玄精墨二丁・紅紬三幅・紅假函三隻.”

15)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1月 23日; 乙丑 11月 30日.

16)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1月 23日. “今此尊崇教是時, 內入玉冊文眞諡書各一件, 及有親受之命, 則肄習件各一件, 所入物種, 磨鍊後錄, 仰稟爲去乎, 依此捧甘取用, 何如? 題辭內依爲於, 肄習件, 更待知委舉行, 紅紬袱裁餘取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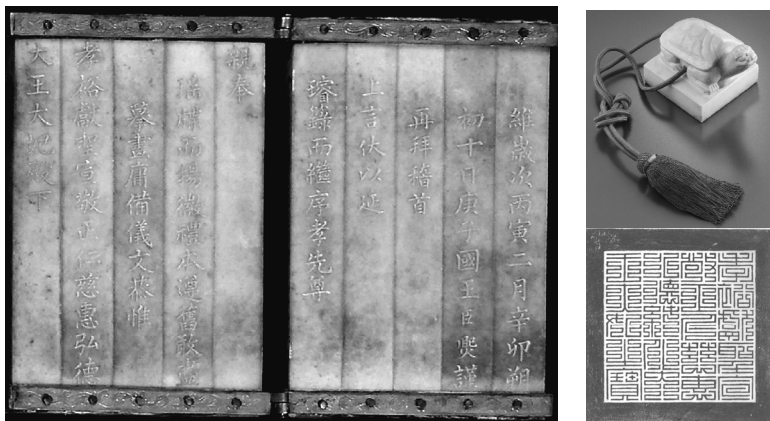
17)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禮闕, 乙丑 11月 25日.

18)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1月 27日.

19) 『尊崇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 乙丑 11月 25日. “本房所掌內入玉寶文眞諡書六件所入, 及北漆印出所入, 各種磨鍊後錄, 仰稟爲去乎, 依此捧甘, 何如? 題辭內依爲於, 筆墨都廳所在取用, 紅紬以內下件入用.”

20)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2月 21日.

21)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2月 11日. “本房所掌三殿玉冊文御覽印本作貼所入, 後錄仰稟爲去乎, 依此捧甘取用, 何如? 題辭內依爲於, 紅紬袱以內下件取用, 筆墨都廳所在取用. 後, 御覽玉冊文六件每件所入, …… 都提調提調製述官書寫官都廳本房郎廳分送件合四十八件所入, …… 合印出所入, …….”



도1-1866년 신정왕후 옥책과 옥보

존승례와 같이 왕실을 경하하는 자리에는 치사(致詞), 전문(箋文), 악장(樂章)을 마련하였다. 치사는 운문, 전문은 산문 형식으로 짓는 축하글로서 내전에서 대왕대비전 등에 정식 의례로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당시 의례의 간소화로 인정전에서 책·보친전의(冊寶親傳儀)와 치사·전문·표리친상의(致詞箋文表裏親上儀)가 동시에 거행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실 여성에게 올리는 치사와 전문은 한글본을 만들었으나, 1851년(철종 2) 헌종의 부묘례 이후 존승례와 같이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다.²²⁾ 악장문은 음악에 맞추어 부르는 운문 형식의 노랫말로서 김보근(金輔根), 김학성(金學性), 서헌순(徐憲淳)이 제술을 맡았다.²³⁾ 당시 존승례는 국장(國葬)에 이어지는 의례로서 의주(儀註)에도 악기를 진설하되 음악을 연주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완성된 악장문을 장악원(掌樂院)에 미리 보내어 연습하도록 한 기록은 보인다.²⁴⁾ 악장문의 전문은 의궤에 수록되어 있다.²⁵⁾

본격적인 의례 거행을 위해서는 각 의식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주(儀註)를 제작하였다. 당시 의례는 1866년 2월 9일 진시(辰時, 오전

22)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附儀註所, 稟目, 乙丑 12月 11日. “取考曆錄, 則尊崇教是時, 每有致詞箋文眞諺書入之例, 而今此尊崇教是時, 親受之節置之事, 命下矣, 今番依辛亥年例, 似當勿爲舉行, 而實難自下擅便, 指一處分, 何如? 手決內, 依辛亥年例舉行.”

23)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1月 6日; 賞典, 丙寅 2月 11日.

24)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2月 11日.

25)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本房所掌. “大王大妃殿樂章文(赫矣一章章十六句), 王大妃殿樂章文(天佑一章章十六句), 大妃殿樂章文(載陽一章章十六句).”

7시 반-8시 반)에 종친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존호가 정해진 것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리고,²⁶⁾ 오시(午時, 오전 11시 반-12시 반)에 책·보를 인정전에 봉안하는 내입의(內入儀)를 거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월 10일에 내출의(內出儀)로 책·보를 꺼내어 국왕이 상전을 통해 전하는 친전의(親傳儀)를 거행하였으며, 치사·전문·표리(예물)도 함께 올렸다. 다만, 대왕대비전을 위한 의례는 묘시(卯時, 5시 반-6시 반), 왕대비전은 을시(乙時, 6시 반-7시 반), 대비전은 손시(巽時, 8시 반-9시 반)으로 시차를 달리 하여 차례로 거행하였다.²⁷⁾ 따라서 의주는 정존호백관상전의(定尊號百官上箋儀) 1건, 책·보내입의 및 내출의 합2건,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 가상존호 책보친전 치사전문표리친상의 합3건으로 총6건인데, 친전의의 경우 한글본도 만듬에 따라 총9건을 제작하였다. 이 때 어람건과 도감 관원들을 위한 의주도 만들었다.²⁸⁾

표1-1866년 의례를 위해 제작된 문헌의 종류와 용도

문헌종류	용도	형태	표기문자	소장처
玉冊文	草圖書	필사본	한자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한중연 장서각
	儀物	玉冊	한자	국립고궁박물관
	御覽件	탁인본	한자	서울대 규장각
	分送件	탁인본	한자	
玉寶文	草圖書	필사본	한자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儀物	玉寶	한자	국립고궁박물관
	御覽件	탁인본	한자	
	分送件	탁인본	한자	
致詞·箋文		필사본	한자	
樂章文		필사본	한자	
儀註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御覽件	필사본	한자	
	分送件	필사본	한자	

26)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禮關, 丙寅 1月 5日.

27)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舉行日記.

28)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附儀註所, 稟目, 乙丑 12月 1日. “今此尊崇教是時, 御覽儀註及堂郎以下各處儀註所入物力, 磨鍊後錄, 仰稟爲去乎, 依此進排事, 捧甘取用, 何如? 手決內依爲旆, 紅紬袱內下件取用, 筆墨都廳所在取用. 後, 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定尊號百官上箋儀註一件所入, ……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大妃殿加上尊號冊寶內入內出儀註合二件每件所入, …… 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大妃殿加上尊號冊寶親傳致詞箋文表裏親上儀註眞諺書合六件每件所入, …… 都提調提調都廳所納儀註八件所入, …… 本房及二三房禮貌官通禮院書員處書送儀註所入, …… 御覽儀註所入, ……”

이상을 통해 1866년 2월 존숭례에서 제작된 주요 문헌은 옥책문, 옥보문, 치사, 전문, 악장문, 의주가 있으며, 각각 용도에 따라 필사본 혹은 탁인본의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례의 주인공인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비전을 위해서는 해당 옥책문, 옥보문, 의주를 한글본으로 제작하여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890년 2월 의례와 한글 문헌

1890년(고종 27) 2월 11일에는 대왕대비 신정왕후·왕대비 효정왕후·고종·왕비 민씨(명성황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왕비 민씨의 보령이 40세에 이른 것을 경하하기 위함이었다. 1889년(고종 26) 11월 29일부터 왕세자 척(拓, 훗날의 純宗)이 두 차례 상소를 올리고, 백관들과 함께 세 차례나 계사(啓辭)를 올려 왕비 민씨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거듭 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도 존호를 올리게 하면서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²⁹⁾ 당시 의례에서 올린 존호는 고종이 ‘요준순휘우모탕경(堯峻舜徽禹謨湯敬)’, 대왕대비전이 ‘희상(熙祥)’, 왕대비전이 ‘수현(粹顯)’, 중궁전이 ‘정화(正化)’였다.

가상존호도감은 12월 20일에 충훈부에서 처음으로 회동하고, 24일부터 각방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일방에서는 옥책, 이방에서는 옥보, 삼방에서는 악장문, 치사, 전문, 의주, 홀기의 제작을 맡았다.

먼저 제술관과 서사관을 임명하였다. 대전을 위해서는 옥책문제술관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서사관 행대호군 이승오(李承五)·옥보전문서사관 행관중추부사 김홍집(金弘集)·악장문제술관 행상호군 민응식(閔應植), 대왕대비전을 위해서는 옥책문제술관 행지중추부사 윤자덕(尹滋惠)·서사관 경기감사 조동면(趙東冕)·옥보전문서사관 좌참찬 조병호(趙秉鎬)·악장문제술관 독판내무부사 심이택(沈履澤), 왕대비전을 위해서는 옥책문제술관 독판내무부사 김영수(金永壽)·서사관 행호군 홍순형(洪淳馨)·옥보전문서사관 형조판서 홍철주(洪澈周)·악장문제술관 한성부판윤 이순익(李淳翼), 중궁전을 위해서는 옥책문제술관 예조판서 한장

29) 『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73), 都廳儀軌, 承傳, 己丑 11月 29日; 12月 1日; 12月 2日.

석(韓章錫)·서사관 광주부유수 민영소(閔泳韶)·옥보전문서사관 우의정 조병세(趙秉世)·악장문제술관 병조판서 민영환(閔泳煥)을 임명하였다.³⁰⁾

옥책문은 제술관이 예문관에 글을 제출하면 승정원을 거쳐 왕의 검토를 받고, 의물에 새길 서사식을 확정하여 초도서를 만드는 데서 시작되었다. 초도서는 왕을 위한 내입건 4건과 세자궁 봉진건(封進件) 4건을 만들었는데, 상품도련지·백면지·당주홍·편연지 등을 사용하였다.³¹⁾ 그리고 초도서를 바탕으로 의물을 제작하는 한편,³²⁾ 한자 및 한글로 정서한 필사본을 제작하였다. 필사본은 용도에 따라 재질을 달리하였는데, 왕과 왕세자 등을 위한 내입건은 상품도련지, 실무자들을 위한 것은 도련지를 사용하였다. 이 때 내입건은 왕을 위한 한자본 4건,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을 위한 한글본 각 1건, 왕세자를 위한 한자본 4건으로 총 11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전 의례를 위해 이습건 12건, 내차비여집사(內差備女執事) 소지건(所持件)으로 한글본 4건도 함께 마련하였다.³³⁾ 의물로 제작한 옥책은 탁인본으로 인출하여 어람건, 세자궁 봉진건, 도제조 등을 위한 분송건으로 구분하여 제작했다.³⁴⁾ 옥보의 전문(篆文) 역시 책문과 마찬가지로 초도서를 만든 뒤 한자 및 한글로 정서한 필사본을 만들었다. 내입건으로 한자 및 한글본 11건과 내차비여집사 소지건으로 한글본 4건을 제작하였다.³⁵⁾ 현재 의물은 국립고궁박물관, 탁인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전한다.

30)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己丑 12月 20日; 賞典, 庚寅 2月 1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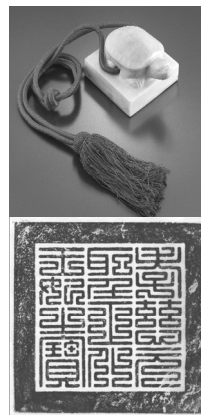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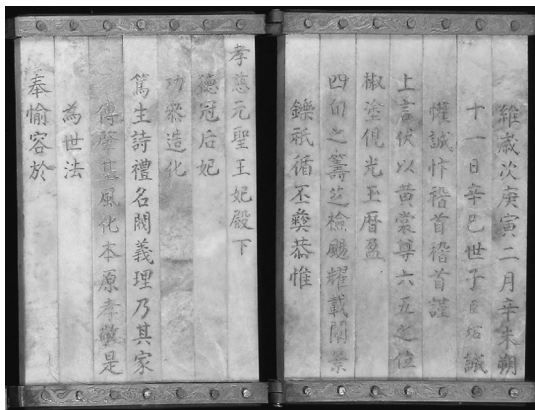
31)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庚寅 1月 10日. “玉冊文書寫時所用, 及內入草圖書所入, 物力磨鍊, 後錄仰稟為去乎, 依此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依. 後. 玉冊文四件每件書寫所用, 黃筆一柄·眞墨一丁·竹清紙二張. 內入草圖書四件·世子宮封進草圖書四件合八件, 每件所入, 白綿紙二張·上品搗鍊紙一張·唐朱紅五分·片膳脂半張·黃筆一柄·眞墨一丁·紅紬三幅袱一件·藍紬三幅袱一件·紅假函一隻·青假函一隻.”

32)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1月 18日.

33)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庚寅 1月 10日. “今此加上尊號教是時內入玉冊文眞諺書七件·世子宮封進玉冊文眞書四件, 及內庭行禮教是時肄習件十二件, 及內差備女執事所持諺書四件, 所入物力, 後錄仰稟為去乎, 依此捧甘, 何如? 手決內依. 後. 玉冊文眞諺書合十一件所入, …… 肄習件合十二件所入, …… 內差備女執事所持諺書四件所入, …….”

34)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庚寅 1月 10日. “本房所掌玉冊文印本作貼, 所入物力, 磨鍊後錄, 仰稟為去乎, 依此捧甘取用, 何如? 手決內依為旆, 依近例別看役分兒件寘之. 後. 御覽玉冊文十二貼四件·世子宮封進件二件·預備件二件每件所入, …… 土貼八件每件所入, …… 都提調提調製述官書寫官都廳本房郎廳監造官別看役合一百四件內十二貼三十八件每件所入, …… 土貼三十八件每件所入, …… 合印出所入 …….”

35) 『加上尊號都監儀軌』, 二房儀軌, 稟目. “本房所掌內入玉寶眞諺書十一件, 所入物力, 後錄仰稟為去乎, 依此捧甘, 何如? 手決內依. 後. 玉寶文眞諺書十一件所入, …… 內差備女執事所持諺書四件及內入各樣笏記六件所入, …….”



도2-1890년 명성황후 옥책과 옥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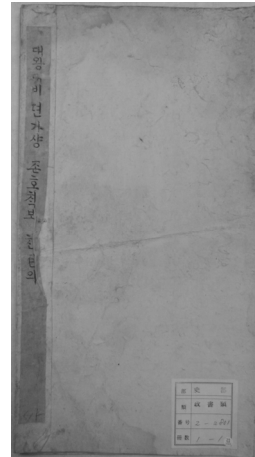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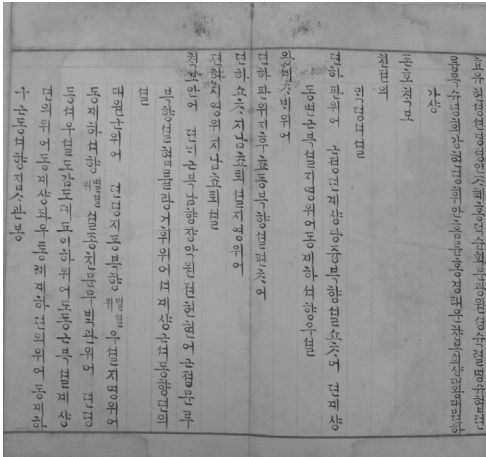
존호를 올리는 대상에게 경하 드리는 내용의 운문 치사는, 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이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각각 올리는 것과 왕세자·왕세자빈이 대전과 중궁전에 각각 올리는 것으로 총12건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산문 형식의 축하글인 전문은 왕·왕세자가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 왕세자가 대전과 중궁전에 각각 올렸으므로 총 6건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왕과 왕세자를 위해서는 해당 치사와 전문을 한자본으로 만들고,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세자빈궁을 위해서는 한글본을 만들어 올렸다. 모두 상품도련지를 사용하였으며, 홍화화주(紅禾花紬)로 장황하였다.³⁶⁾ 치사 및 전문의 원문은 의례에 수록되어 있다.³⁷⁾

악장문은 대전·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을 위한 노랫말로 4건이 제작되었다. 모두 4자 16구로, 각각 ‘천우(天佑)’, ‘천우(天祐)’, ‘지덕(至德)’, ‘곤후(坤厚)’라는 주제로 지어졌다.³⁸⁾ 의주에 따르면, 1866년의 의례와 달리 음악은 연주되었으나, 노래를 부르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 노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악원에 미리 보내어 연습하게 한 기록은 있다.

36)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2月 8日; 三房儀軌, 附儀註所, 庚寅 1月 11日.

37) 『加上尊號都監儀軌』, 三房儀軌, 箋文; 致詞.

38) 『加上尊號都監儀軌』, 三房儀軌, 樂章.



도3- 1890년 ‘대왕대비전 기상준호책보 친전의 한글본 의주

본격적인 의례 거행을 위해서는 각 의식의 절차를 빠짐없이 서술한 의주와 주요 절차만 간략하게 정리한 홀기(笏記)를 제작하였다. 당시 의례는 1890년 2월 10일 손시(巽時, 8시 반~9시 반)에 기상준호 책·보를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 봉안하는 내입의를 거행한 뒤 의례 당일인 2월 11일에 꺼내는 내출의로 시작되었다. 진시(辰時, 오전 7시 반~8시 반)에는 국왕이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의 책·보를 상전을 통해 각각 전하는 친전의를 연이어 거행하였는데 왕세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왕세자는 대전 및 중궁전 책·보를 상전을 통해 전하는 친전의를 거행하였다.³⁹⁾ 그리고 강녕전(康寧殿)에서 책·보와 함께 치사·전문·예물을 올리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을 위한 의례는 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의 주도로 각각 거행되었으며, 대전 및 중궁전을 위한 의례는 왕세자·왕세자빈이 주관하였다.⁴⁰⁾ 이상의 주요 의례들은 의주와 홀기로 제작되었는데, 대전에는 한자본 8건,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에는 한글본 각 2건, 중궁전에는 한글본 4건, 세자궁에는 한자본 6건, 세자빈궁에는 한글본 3건으로 참여자에 따라 표기 문자와 수량을 달리 하였다.⁴¹⁾

39)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時日; 儀註.

40) 『儀註膳錄』續22(K2-2136).

41)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2月 8日; 三房儀軌, 附儀註所, 庚寅 1月 11日.

이와 같이 의례의 주요 문헌인 옥책문, 옥보문, 치사, 전문, 약장문, 의주, 홀기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한자 및 한글본으로 제작되었음을 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90년 의례의 경우, 내전 즉 강녕전에서 독책여관(讀冊女官), 독보여관(讀寶女官), 전언(典言), 독전여관(讀箋女官)이 각각 옥책, 옥보, 치사, 전문을 읽었으며, 여관 혹은 여집사들이 모든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⁴²⁾, 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글본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표2- 1890년 의례를 위해 제작된 문헌의 종류와 용도

문헌종류	용도	형태	표기문자	소장처
玉冊文	草圖書	필사본	한자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한중연 장서각
	肄習件	필사본	한자/한글	
	女執事所持件	필사본	한글	
	儀物	玉冊	한자	국립고궁박물관
	御覽件・世子宮封進件	탁인본	한자	한중연 장서각
	分送件	탁인본	한자	한중연 장서각
玉寶文	草圖書	필사본	한자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儀物	玉寶	한자	국립고궁박물관
	御覽件・世子宮封進件	탁인본	한자	한중연 장서각
	分送件	탁인본	한자	한중연 장서각
樂章文		필사본	한자	
致詞・箋文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儀註・笏記	內入件	필사본	한자/한글	한중연 장서각

Ⅲ. 한글본 책문의 형태와 특성

1. 형태적 특징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 4건은 모두 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

42) 당시 의례의 내차비(內差備) 명단을 기록한 발기(件記) 2건(「죽년마마 존호시 준비관 불기」(장서각 왕실고문서 1682), 「낭년마마 존호시 준비관 불기」(장서각 왕실고문서 1686))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해당 여집사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각에 소장되어 있다.⁴³⁾ 앞서 밝혔듯이, 1866년 2월 10일에 고종이 대왕대비 신정왕후·왕대비 효정왕후·대비 철인왕후에게 각각 올린 책문 3건과 1890년 2월 11일에 왕세자가 왕비 명성황후에게 올린 책문 1건으로, 국립고궁박물관, 규장각, 장서각 등에 전하는 옥책 및 탁인본과 비교할 수 있다.

표3- 한글본 책문의 종류와 서지사항

자료명	시기	수량	행자수	크기
대왕대비가상존호책문	1866. 2. 10.	1帖(14面)	5행12자	27.0×16.8cm
왕대비가상존호책문	1866. 2. 10.	1帖(12面)	5행12자	27.2×16.8cm
대비가상존호책문	1866. 2. 10.	1帖(10面)	5행12자	27.1×16.6cm
왕비가상존호책문	1890. 2. 11.	1帖(10面)	7행12자	26.9×15.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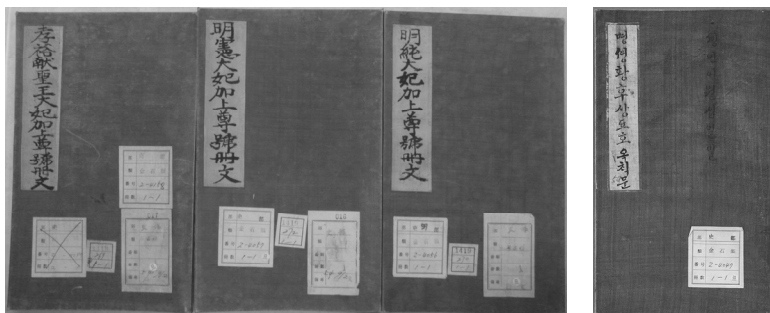
한글본 책문은 대략 세로 27cm, 가로 16-16.8cm 크기의 종이를 여러 겹으로 접은 절첩본(折帖本)으로서 서배(書背)를 감싼 형태이다. 1866년 책문은 5행 12자, 1890년 책문은 7행 12자로 한 면의 글자 분량이 다를 뿐 외형은 비슷하다. 이는 실제 의물로 제작된 옥책의 모양과 연관이 있다. 의궤 기록에 따르면, 1866년에는 5간(簡)을 1첩, 1890년에는 7간을 1첩으로 엮되, 한 간의 크기는 세로 9치, 가로 1치2푼, 두께 6푼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였다.⁴⁴⁾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작된 옥책이 국립고궁박물관에 현전하며, 대략 세로 26.3cm, 가로 17.5cm를 한 첩(貼)으로 하여 여러 개를 겹친 형태이다. 즉, 한글본 책문은 실제 옥책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본 가상존호책문의 형태에서 주목할 부분은 표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구성원에게 올리는 내입건은 특정 비단으로 표지를 장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여성 집사의 실무를 위한 이습건이나 소지건 등은 표지 상황의 소용 물품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3) 「孝裕獻聖王大妃加上尊號冊文」(장서각 K2-4158), 「明憲大妃加上尊號冊」(장서각 K2-4057), 「明純大妃加上尊號冊文」(장서각 K2-4056), 「명성황후상도호옥책문」(장서각 K2-4047)

44)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圖式, 玉冊三件. “用南陽玉. 每簡長九寸廣一寸二分厚六分, 用禮器尺, 以五簡作一貼, 每簡極行十二字·中行十一字·平行十字.”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圖說, 玉冊四件. “用南陽玉. 玉簡各長九寸廣一寸二分厚六分, 用禮器尺. 今番則以七簡作一貼, 極行十二字·中行十一字·平行十字.”

표지 장황의 소재만으로도 그 용도를 판별할 수 있다. 1866년의 한글본 책문 3건은 초록색 비단 표지에 붉은색 테두리의 흰색 비단 제첩(題籤)을 붙였다. 그리고 서배(書背)는 제첩의 테두리와 같이 붉은색 비단으로 감쌌다. 당시 내입건을 제작할 때 진초록색 수주(水紬)를 표지로 쓰고, 제첩은 흰색 수주에 붉은색 수주를 테두리로 꾸며서 만들게 했다⁴⁵⁾는 의례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1890년 한글본 책문의 장황은 붉은색 비단 표지에 초록색 테두리의 흰색 비단 제첩을 붙인 형태이며 서배는 초록색 비단으로 감쌌다. 이 또한 붉은색 수주에 초록색 테두리의 흰색 수주 제첩을 붙여 표지를 장황하여 내입건을 제작했다⁴⁶⁾는 의례의 기록과 일치한다. 즉, 현전하는 한글본 가상존호책문은 의례 기록에서 묘사한 내입건의 표지 장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동일한 용도로 제작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도4-책문의 표지 장황

- 45)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1月 23日. “今此尊崇教是時內入玉冊文眞諺書各一件, 及有親受之命則肄習件各一件, 所入物種, 磨鍊後錄, 仰稟爲去乎, 依此捧甘取用, 何如? 題辭內依爲於, 肄習件更待知委舉行, 紅紬袱裁餘取用. 後. 玉冊文眞諺書各一件・肄習件各一件合八件所入, 上品搗鍊紙八張・白綿紙四張・黃筆二柄・首陽玄精墨一丁・畫筆一柄・唐朱紅五分・片臙脂半半張・膠末四合・衣次眞草綠水紬長七寸廣五寸十六片・題目次白水紬長三寸廣一寸八片・紅挾次多紅水紬長三寸廣五分八片・後褙白綿紙八張・紅紬三幅袱四件・紅假函四隻.”
- 46)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庚寅 1月 10日. “今此加上尊號教是時內入玉冊文眞諺書七件・世子宮封進玉冊文眞書四件, 及內庭行禮教是時肄習件十二件, 及內差備女執事所持諺書四件, 所入物力, 後錄仰稟爲去乎, 依此捧甘, 何如? 手決內依. 後. 玉冊文眞諺書合十一件所入, 上品搗鍊紙十一張・白綿紙十一張・黃筆十一柄・眞墨四丁・畫筆四柄・唐朱紅一錢・片臙脂一張・膠末三合・衣次紅水紬長七寸廣五寸十四片・藍水紬長七寸廣五寸八片・題目次白水紬長三寸廣一寸十一片・袂次水紬長七寸廣五分・草綠七片・紅四片・後褙次白綿紙八張・紅紬三幅袱四件・藍紬三幅袱一件・紅假函四隻・青假函一隻. 肄習件合十二件所入, 搗鍊紙十二張・黃筆五柄. 內差備女執事所持諺書四件所入, 搗鍊紙四張・草綠水紬長七寸廣五寸八片・後褙白綿紙二張・膠末四合・唐朱紅六分・片臙脂半張.”

책문의 본문을 쓰는 내지에는 붉은 인찰선이 있는데, 의궤 기록으로 보아 당주홍과 편연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아래 테두리는 굵은 선을, 행과 열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가는 선을 그어 한 칸에 글자 한 자를 쓸 수 있게 하였다. 다만 1866년의 책문 3건은 열을 구분하는 가로선을 색깔 없이 철필(鐵筆)로 그어 종이에 표시만 남도록 하였다. 각 경계선의 끝부분에는 일직선으로 선을 긋기 편하도록 뾰족한 침으로 구멍을 찌른 흔적이 있다. 이와 같이 인찰선을 그어 한 칸에 글자 한 자를 쓰는 방식은 옥책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 서사식을 반영하여 제작하는 ‘초도서’와 동일하다. 책문의 초도서는 각각 1866년 11월 30일, 1890년 1월 18일에 왕의 검토를 거친 뒤⁴⁷⁾에 옥책, 필사본 등의 제작에 견본 역할을 하였다. 이후 내입건으로 제작된 필사본 한글 책문은 1866년 12월 21일, 1890년 2월 3일에 대왕대비전 등에 올려졌다.⁴⁸⁾

한글본 책문의 글자를 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책문의 글자는 옥에 새겨서 의물로 제작해야 하므로, 글을 짓는 제술관과 별개로 전담 서사관을 두어 특별히 공을 들여 글자를 쓰게 하였다. 그러나 필사본의 경우에는 의례에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않으므로, 굳이 서사관이 쓰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서사관의 필체를 새긴 옥책과 필사자가 명시되지 않은 한문 필사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옥책과 한문 필사본이 함께 현전하는 1883년(고종 20) 1월의 신정왕후 가상존호 책문과 1888년(고종 25) 3월의 효정왕후 가상존호 책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자의 자형과 서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⁹⁾ 즉, 옥책의 글자를 전담하는 서사관이 필사본의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한글 필사본 역시 서사관이 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필사본 책문으로서 한자본과 한글본이 함께 전하는 1823년(순조 23)

47)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1월 30日;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1월 18日.

48)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2월 21日;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2월 3日.

49) 1883년(고종 20) 1월의 한문필사본 「神貞王后加上尊號玉冊文」(장서각 K2-4103)과 옥책 「文祖妃神貞王后加上尊號玉冊」(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16), 1888년(고종 25) 3월의 한문필사본 「明憲王大妃加上尊號玉冊文」(장서각 K2-4058)과 옥책 「憲宗繼妃孝定王后加上尊號玉冊」(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43)을 비교한 결과 한자의 자형과 서체가 서로 달랐다.

유빈 박씨의 시책문 및 애책문의 경우 서사관이 아닌 남성 관원이 쓴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⁵⁰⁾ 한글본 책문의 서체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쓴 정자체로서 조선 왕실의 내인들이 쓰는 궁체(宮體)와는 다르다. 궁체는 대체로 곡선의 형태로 획이 완만하며 획의 시작과 끝이 정교한 반면, 책문의 서체는 직선의 형태로 획이 짧고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남성의 한글 서체로 규명된 『덩니의궤(整理儀軌)』, 『즈경दन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경우⁵¹⁾와 비슷하다. 따라서 상궁의 이습건으로 제작된 유빈 박씨의 책문과 마찬가지로 내입건으로 제작된 가상존호 책문 또한 남성 관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책문의 글자를 쓸 만한 관원으로 사자관(寫字官)을 추정하는 의견도 있으나,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사자관은 1-2품의 서사관에 비해 품계가 낮은 3품 이하의 관원들로서 옥책의 보획(補劃)이나 배칠(北漆), 어람건 의궤 및 의주의 정서(正書) 등을 맡았다. 이외에 분상건 의궤의 정서를 담당하는 서사(書寫) 등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은 본문에 구두점(句讀點)이 찍혀 있지 않다. 1823년의 유빈 박씨 책문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유빈 박씨의 한글 필사본 책문은 구두점의 간격을 짧게 하여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정식 의례에서 책문을 낭독하는 상궁이 습의 이전까지 연습용 대본으로 사용하는 이습건에 알맞게 제작된 것임을 규명한 바 있다.⁵²⁾ 따라서 구두점이 없는 가상존호 책문은 이습건과는 다른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내용과 성격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은 한문 원문의 우리말 음가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서 번역문은 아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문 원문을 참고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866년의 한글본 책문은 3건 모두 ‘유세충병인이월신묘삭초십일경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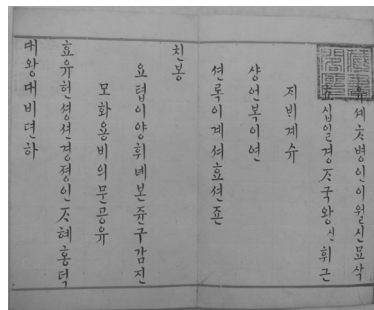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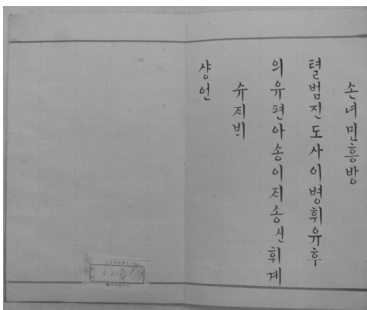
50) 김봉좌, 앞의 논문(2017), 166-167쪽.

51) 최영희, 「조선시대 한글 필사본 『덩니의궤(整理儀軌)』 서체의 특징 연구」, 『서예학연구』 제23호(2013), 184-200쪽.

52) 김봉좌, 앞의 논문(2017), 168-170쪽.

국왕신휘 근직비계슈상언'으로 시작한다. 원문의 '維歲次丙寅二月辛卯朔初十日庚子 國王臣諱謹再拜稽首上言'과 동일하게 쓰되, 그 한자음을 한글로 옮겨 쓴 것이다. 이는 “병인년(1866, 고종 3) 2월 10일에 국왕 신 휘가 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글로서, 책문을 올리는 날짜와 발화자가 국왕인 고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필사본에는 국왕의 이름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휘(諱)'로 표기하였으나, 옥책에는 고종의 이름 '熙(熙)'가 새겨져 있다.

본문은 '복이(伏以) 즉 '엎드려 생각건대'로 시작하여 대구(對句)를 이루는 문장으로 책문의 주인공을 칭송하고 존호를 올리는 의의 등을 읊었다. 마지막에는 '근봉척보가상존호왈(謹奉冊寶加上尊號曰)' 즉 '삼가 옥책과 옥보를 받들어 더하여 올리는 존호를 ○○라고 하니'라고 하여 각각의 해당 존호를 밝혔다. 그리고 '신(臣) 휘(諱) 계슈지비상언(稽首再拜上言)'으로 끝을 맺었다. 여기서의 '휘' 또한 옥책에는 고종의 이름자가 새겨져 있다. 본문의 서식은 의궤의 원문⁵³⁾ 및 옥책⁵⁴⁾과 동일하게 극항(極行) 12자, 중항(中行) 11자, 평항(平行) 10자로 썼으며 행을 바꾸거나 대두(擡頭)한 부분도 일치한다. 다만 왕대비 효정왕후의 한글본 책문에서 '존호왈(尊號曰)'과 '홍성(弘聖)'을 극항이 아니라 중항으로 잘못 쓰면서 한 글자씩 밀린 부분이 있을 뿐이다. 본문의 내용은 대왕대비에게 '순화(純化)', 왕대비에게 '홍성(弘聖)', 대비에게 '휘성(徽聖)'의 존호를 각각 올리며 왕실 안팎의 공로를 칭송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때 대비는 철종의



도5- 1866년 대왕대비 가상존호책문

53)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大王大妃殿玉冊文; 王大妃殿玉冊文; 大妃殿玉冊文.

54) 「문조비신정왕후가상존호옥책」(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06); 「헌종계비효정왕후가상존호옥책」(종묘13440); 「철종비철인왕후가상존호옥책」(종묘13456). ※「헌종계비효정왕후가상존호옥책」은 착간(錯簡)되어 앞뒤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훗날 복원 과정에

국상이 끝난 뒤라 중궁전에서 대비로 지위가 격상됨과 동시에 존호를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이 책문에 반영되어 있다.

옥책은 1866년 2월 10일에 국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상전에게 전하는 친전의의를 거행한 뒤 대왕대비전 등에 올랐다. 의례에서는 악기만 진설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⁵⁵⁾ 친전의의 절차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봉책관(捧冊官) 2인이 책안(冊案) 위의 책함(冊函)을 들고 가서 도제조에게 주고, 도제조가 근시(近侍)에게 주면 근시가 국왕에게 올린다. 국왕이 받을 때 근시가 맞잡고 있다가 상전에게 주면 상전은 전내(殿內)의 책안에 다시 가져다 둔다. 그리고 모든 의식 절차가 끝나면 상전이 책함을 들고 인정문(仁政門) 밖으로 나가 요여(腰輦)에 싣는다. 이 때 보록(寶錄)을 싣은 채여(彩輿)와 치사·전문·예물함을 싣은 용정(龍亭)이 뒤따르며 상전과 도제조 이하가 대비 처소까지 따라간다. 처소에 이르면 상전이 책함을 비롯하여 보록·치사함·전문함·예물함을 여관(女官)에게 전하는 것으로 의례가 마무리되었다.⁵⁶⁾ 이와 같은 절차를 새벽 5시 반에는 대왕대비전, 6시 반에는 왕대비전, 8시 반에는 대비전을 위하여 차례로 거행하였다.

친전의를 행한 뒤에는 내전에서 여관이 옥책을 비롯하여 옥보·치사·전문·예물을 대왕대비전 등에 올리는 의례를 거행하지만, 당시에는 대왕대비전의 명령으로 생략하였다. 내전 의례에는 여관들이 옥책 등을 들고 낭독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필사본 책문 또한 여성 집사를 위한 이습건은 만들지 않고, 대왕대비전 등에 올리는 내입건만 만들었다. 내입건의 제작을 위해 1865년(고종 2) 11월 23일에 소용 물품들을 요청하고,⁵⁷⁾ 한 달 뒤 12월 21일에 한자 및 한글본을 만들어 대왕대비전 등에 미리 올린 기록이 있다.⁵⁸⁾ 이와 같은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필사본 책문은

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55) 조선 초에는 국왕이 조정 관원인 사자(使者)를 통해 책문을 전하고, 상전과 여관을 거쳐 대비에게 올리는 방식이었으나, 1756년(영조 32)부터 국왕이 상전에게 직접 전하여 여관을 거쳐 올리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1778년(정조 2) 이후에는 부묘(附廟)로 인해 존호를 올리는 의례에서 악기만 진설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김종수, 「조선시대 대왕대비·왕대비 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52집(2012), 13-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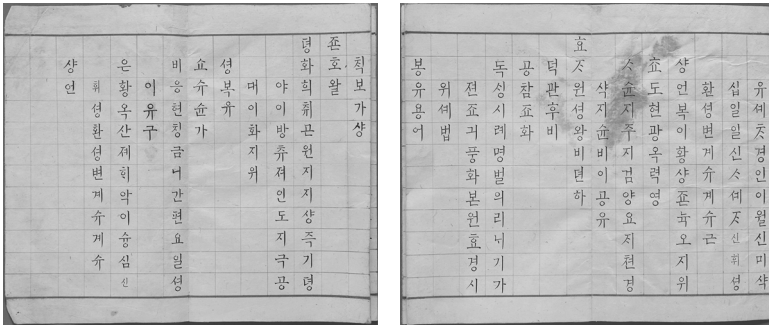
56)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儀註.

57) 『尊崇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乙丑 11월 23日.

58) 『尊崇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乙丑 12월 21日. “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 大王大妃

내입건만 제작되었다. 그리고 현전하는 한글본 책문 3건의 외관은 의궤 기록의 내입건 표지 상황과도 일치하므로, 이들 모두 내입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90년의 한글본 책문은 ‘유세충경인이월신미삭십일일신스(維歲次庚寅二月辛未朔十一日辛巳) 세자(世子) 신(臣) 휘(諱) 성환성변계슈계슈근상언(誠權誠忤稽首稽首謹上言)’으로 시작하고, ‘신(臣) 휘(諱) 성환성변계슈계슈상언(誠權誠忤稽首稽首上言)’으로 끝맺었다. “경인년(1890, 고종 27) 2월 11일에 세자 신 휘가 진실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뜻으로서, 책문을 올리는 날짜와 발화자가 세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필사본의 ‘휘’는 옥책에 세자의 이름자 ‘토(척)’으로 새겨져 있다. 책문의 머리말과 맺음말은 전례에 따른 것으로, 대전과 중궁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성환성변계슈계슈근상언’으로 시작하여 ‘성환성변계슈계슈상언’으로 끝맺고, 선왕에게 존호를 추상(追上)하거나 대왕대비전 등에 존숭(尊崇)하여 존호를 올릴 때는 ‘근재배계슈상언’으로 시작하여 ‘계슈재배상언(稽首再拜上言)’으로 끝맺는다고 한다.⁵⁹⁾



도6-1890년 왕비 가상존호책문

본문은 ‘복이(伏以) 즉 ‘엎드려 생각건대’로 시작하여 대구를 이루는 문장으로 마흔 살이 된 왕비 민씨의 덕과 공로를 칭송하고 자식으로서 존호를 올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읊었다. 그리고 ‘근봉척보가상존호왈녕화(謹奉冊寶加上尊號曰正化)’ 즉 “삼가 옥책과 옥보를 받들어 더하여

殿玉冊文玉寶文·王大妃殿玉冊文玉寶文·大妃殿玉冊文玉寶文書出眞謄各一本，謹此封入之意，敢啓。傳曰，知道。”

59) 『承政院日記』 고종 10년 2월 1일.

올리는 존호를 ‘정화(正化)’라고하니”라고 하여 존호를 밝히며, 복록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본문의 서식은 의례의 원문⁶⁰⁾ 및 옥책⁶¹⁾과 동일하게 극향 12자, 중향 11자, 평향 10자로 썼으며 행을 바꾸거나 대두한 부분도 일치한다.

옥책은 1890년 2월 11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상전에게 전하는 친전의 를 거행한 뒤 강녕전에서 여관이 대왕대비 등에게 바치는 의례를 통해 올렸다. 친전의는 국왕 고종이 대왕대비 신정왕후와 왕대비 효정왕후에게 각각 올리는 옥책을 상전에게 전하는 의례로 1866년과 동일하나 왕세자가 참여한 점이 다르다. 왕과 왕비 민씨의 옥책은 왕세자가 올리는 것이므로 그가 상전에게 전하는 친전의를 거행하였다. 이와 같이 왕세자가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친전의의 절차가 1866년의 의례와 조금 다르다. 봉책관 2인이 책안 위의 책함을 들고 가서 도제조에게 주고, 도제조가 궁관(宮官)에게 주면 궁관이 왕세자에게 올린다. 왕세자가 받을 때 궁관이 맞잡고 있다가 상전에게 주면 상전은 전내의 책안에 다시 가져다 둔다. 모든 의식 절차가 끝나면 상전이 책함을 들고 나가 요여에 신고서 보록을 실은 채여와 함께 왕과 왕비가 계시는 강녕전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함문(閤門) 밖에서 처소에 이르면 상전이 책함과 보록을 상궁에게 전하는 것으로 의례가 마무리되었다.⁶²⁾

강녕전에서는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을 위하여 왕을 비롯하여 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이 옥책 · 옥보 · 치사 · 전문 · 예물을 올리는 의례에 참여하였다. 봉책여관(捧冊女官)이 책함을 들고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왕이 홀을 꽂고서 받는다. 이 때 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은 각자 배위(拜位)에서 무릎을 꿇는다. 왕이 책함을 다시 봉책여관에게 주면 책안에 올려 둔다. 전책여관(展冊女官)이 책안에 나아가 책함을 열고 옥책을 펼치면 독책여관(讀冊女官)이 무릎을 꿇고서 책문을 낭독한다. 낭독이 끝난 뒤 전책여관이 옥책을 다시 함에 넣고 봉책여관이 책함을 책안에 올려 두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이어서 여관들이 옥보의 전문, 치사, 전문을 읽고 예물함까지 올리며 의식을 마무리한다. 대전과 중궁전을 위해서는 왕세자가 봉책여관과 책함을 주고받는 것 외에는

60)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中宮殿加上尊號玉冊文.

61) 「고종비명성왕후가상존호옥책」(종묘13471).

62)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儀註.

앞의 의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⁶³⁾

1890년의 의례에서는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올리는 책문 총 4건이 제작되었으나, 한글 필사본으로는 중궁전 즉 왕비 민씨를 위한 책문만 현전한다. 의례 기록에 따르면, 한글 필사본 책문은 1월 10일에 대왕대비전·왕대비전·중궁전을 위한 내입건, 낭독을 담당하는 여관을 위한 이습건, 여성 집사의 보관용 소지건으로 구분 제작하도록 하고, 각 건의 제작을 위해 소용 물품을 요청하였다.⁶⁴⁾ 당시 요청한 물품 내역을 살펴보면 내입건의 경우 본문을 쓰는 각종 재료들을 비롯하여 표지 장황에 소용되는 다양한 색상의 비단들까지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표지 장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내입건으로 제작한 한글 필사본 책문은 2월 3일 대왕대비전 등에 올렸다고 한다.⁶⁵⁾ 이에 따르면 왕비 민씨의 한글 책문은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내입건·이습건·소지건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표지 장황 등 외관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현전하는 왕비 민씨의 한글본 책문은 내입건일 가능성이 높다.

현전하는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의 형태적·내용적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비빈에게 미리 올리는 내입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왕실에서는 의례를 주관하는 왕을 비롯하여 이에 참여하는 왕실 구성원을 위해 주요 문헌들을 미리 제작하여 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의례의 핵심이 되는 문헌들을 내입건으로 미리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다만 특정 문헌의 내용보다는 의식의 형식적 절차를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 책문과 같이 옛 고사를 인용하여 고급 문장을 구사한 문헌의 경우, 한문본이나 한글본 모두 우리말로 풀어쓴 번역문이나 설명 없이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입건으로 제작된 한글본 책문은, 의례에서 낭독되는 원 책문의 한자 음가를 확인하

63) 『儀註膳錄』續22,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王大妃殿下加上尊號時殿下·王妃·王世子·王世子嬪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儀”; “明憲淑敬睿仁正穆引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王大妃殿下加上尊號時殿下·王妃·王世子·王世子嬪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儀”;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殿下·孝慈元聖正化王妃加上尊號時王世子·王世子嬪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儀”

64) 『加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 稟目, 庚寅 1月 10日.

65) 『加上尊號都監儀軌』, 都廳儀軌, 承傳, 庚寅 2月 3日.

는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IV. 맺음말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의 제작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형태적 특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글본 책문의 성격과 용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전하는 한글본 가상존호 책문은 총4건으로, 1866년(고종 3) 2월 10일에 국왕 고종이 대왕대비 신정왕후·왕대비 효정왕후·대비 철인왕후를 위하여 각각 존호를 올린 책문 3건, 1890년(고종 27) 2월 11일에 왕세자가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위하여 존호를 올린 책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글본 책문은 국왕 및 비빈에게 올리는 내입건, 낭독을 담당하는 여관을 위한 이습건, 여성 집사의 보관용 소지건으로 구분 제작되었는데, 가상존호 책문은 모두 비빈에게 올리는 내입건에 해당된다. 의례 기록에 따르면 내입건은 다양한 종류의 비단으로 표지를 장황하도록 명시한 반면, 이습건이나 소지건에 대해서는 표지 장황에 대해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 그 외관부터 차별화하였다. 현전하는 1866년의 한글본 책문 3건은 초록색 비단에 붉은색 테두리의 흰색 비단 제첩을 붙여 표지를 꾸미고, 서배는 제첩의 테두리와 같이 붉은색 비단으로 감싼 형태이다. 그리고 1890년의 한글본 책문은 붉은색 비단 표지에 초록색 테두리의 흰색 비단 제첩을 붙인 형태로서 서배는 초록색 비단으로 감쌌다. 이는 의례의 내입건과 일치하는 형태이다.

내입건은 해당 의례에 참여하는 왕실 구성원을 위하여 미리 올리는 것으로, 문헌의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의례 문헌의 경우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아 한문본이나 한글본 모두 배경 지식 없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글본은 원문의 한자 음가를 확인하는 용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 왕실의 비빈들이 참여하는 의례에는 주요 문헌들을 한글본으로 별도 제작하였는데, 해당 의례에 구체적인 내역이 기록된 경우가 많다. 다른 자료에 비해 그 제작 배경과 용도를 파악하기가 다소 용이한 편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기록물로 제작된 것이므로, 당시 한글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글 사용 계층의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 왕실의 한글 자료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는 조선시대 한글 사용의 실상을 규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孝裕獻聖王大妃加上尊號冊文」, 장서각 K2-4158.
- 「明憲大妃加上尊號冊文」, 장서각 K2-4057.
- 「明純大妃加上尊號冊文」, 장서각 K2-4056.
- 「명성황후상도호옥칙문」, 장서각 K2-4047.
- 「문조비신정왕후가상존호옥책」, 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06.
- 「헌종계비효정왕후가상존호옥책」, 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40.
- 「철종비철인왕후가상존호옥책」, 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56.
- 「고종비명성왕후가상존호옥책」, 국립고궁박물관 종묘13471.
- 「翼宗妃·憲宗妃·哲宗妃上尊號玉冊文」, 규장각奎27379.
- 「高宗加上尊號玉冊文」, 장서각 K2-4030-4032.
- 「神貞王后加上尊號玉冊文」, 장서각 K2-4097.
- 「孝定王后加上尊號玉冊文」, 장서각 K2-4164/4168.
- 「明成皇后上尊號玉冊文」, 장서각 K2-4045/4943.
- 「대왕대비던 가상존호칙보 친전의」, 장서각 K2-2801.
- 「경인이월십일일 죽던마마 존호시 죽비관 불기」, 장서각 왕실고문서 1682.
- 「경인이월십일일 낳던마마 존호시 죽비관 불기」, 장서각 왕실고문서 1686.
- 『尊崇都監儀軌』, 규장각奎13448.
- 『加上尊號都監儀軌』, 규장각奎13473.
- 『藏書閣韓國本解題: 史部1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6.
- 『藏書閣韓國本解題: 史部1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 『장서각한글자료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0.
-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6.

2. 논문

-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순조대 진작 의례와 한글 기록물의 제작: 1827년 慈慶殿進爵儀禮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140호, 2015, 151-179쪽.
- _____, 「綏嬪 朴氏 한글 冊文의 제작 배경과 특성」, 『진단학보』 제129호, 2017, 153-179쪽.
- 김중수, 「왕대비 加上尊號儀의 의례와 음악: 정조대(1776-1800) 『尊號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2011, 71-107쪽.
- _____, 「조선시대 大殿·中殿 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 제49집, 2012, 143-179쪽.
- _____, 「조선시대 대왕대비·왕대비 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52집, 2012, 5-37쪽.
- 장을연, 「冊文의 筆寫本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보』 제33호, 2009, 185-213쪽.
- _____, 『朝鮮時代 冊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영희, 「조선시대 한글 필사본 『整理儀軌』 서체의 특징 연구」. 『서예학연구』 제23호, 2013, 173-204쪽.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글본 가상존호책문(加上尊號冊文)의 제작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형태적 특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글 책문의 성격과 용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전하는 한글본 가상존호책문은 총4건으로, 1866년(고종 3) 2월 10일에 국왕 고종이 대왕대비 신정왕후·왕대비 효정왕후·대비 철인왕후를 위하여 각각 존호를 올린 책문 3건, 1890년(고종 27) 2월 11일에 왕세자가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위하여 존호를 올린 책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글 책문은 국왕 및 비빈에게 올리는 내입건(內入件), 낭독을 담당하는 여관을 위한 이습건(肄習件), 여성 집사의 소지건(所持件)으로 구분 제작되었는데, 가상존호 책문은 모두 비빈에게 올리는 내입건에 해당된다.

투고일 2018. 6. 20.

심사일 2018. 7. 7.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한글 문헌(Hangeul manuscripts), 책문(investiture letter), 존호(posthumous title), 가상존호의례(posthumous title-conferring rite), 조선 왕실 의례(Joseon royal rite)

Abstracts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Hangeul* Investiture Letters Conferring Additional Posthumous Titles on the Royalty of the Joseon Dynasty

Kim, Bong-jwa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s of *Hangeul*-written investiture letters that confer additional posthumous titles on the royalty of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ir production background, physical features and contents.

There are a total of four extant *Hangeul* investiture letters that confer ancillary posthumous titles on particular individuals of the Joseon Dynasty. Three of them record King Gojong's conferral of additional posthumous titles on Great Royal Dowager Queen Shinjeong, Queen Dowager Hyojeong, and Queen Mother Cheolin on February 10, 1866. The other letter, written by the crown prince on February 11, 1890, confers a posthumous title on his mother, Queen Myeongseong.

In general, investiture letters were produced in *Hangeul* for three purposes: as court documents presented to the king, the queen, and royal consorts for their approval; as practice materials by which a designated court matron rehearsed reading the contents of funerary rituals; and as preservation materials for the court matron. All existing *Hangeul* investiture letters that confer additional posthumous titles are court documents presented to queens.